

특별진단 2022년 제주 재도약 (1)국제자유도시 위기

특례 도입 ‘반짝’... 용두사미 전략

투자·고용창출 효과 속 2015년 이후 자본 유치 시들
“난개발로 도민 삶 피해해져”... 일부에선 폐지 목소리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제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정부와 올해 도정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5회에 걸쳐 진단한다.

제주를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과 휴양지로 육성하기 위해 1999년부터 추진해 온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운명의 기로에 서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감귤·관광 산업에 치중된 사업구조를 고도화

하는 한편 국가경제 개방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주도에 한해 허용해 준 특례이다.

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성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를 위한 부동산 투자 이민제 등 각종 특례가 도입됐으며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진행돼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이 이뤄졌다.

지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전국 평균이 5.8%이었으나 제주는 7.0%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7월 월화릉 제주도정이 출범한후 난개발 차단 명목으로 오라관광단지개발 사업 등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중단시켰다. 이에 투자유치는 지난 2015년 147건에서 2020년 66건으로 줄어들면서 제주경제성장이 둔화됐다. 도내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 전용병원은 개원도 못했다. 이에 도내 상공인들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내 조세 감면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부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폐지를 거론하고 있다.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중산간이 훼손되고 도민들의 삶이 오히려 피해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특례를 삭제한 ‘국제도시특별법’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제자유도시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청정과 공존을 강조하고 있지만 20~30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다. 새 정부와 새로운 도정은 제주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대로그기자



폭설 내린 1100고지의 즐거움 8일 눈이 쌓인 1100고지를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눈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상국기자

도감사위 공직자 선거법위반 감찰 강화

제주도감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감찰은 오는 3월 8일까지 제주도 본청과 산하기관, 행정시, 읍면동,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도감사위는 이 기간 소셜미

디어(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의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시한다.

또 도감사위는 홈페이지에 누구나 익명으로 공직선거 비위를 신고할 수 있게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

도감사위는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계획이다.

이상민기자

제주 코로나19 신규 12
9일 <17시 기준> 누적 4830

예비사회적기업에 보금자리 제공

도, ‘소셜캠퍼스온’ 유치... “프로그램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인 ‘소셜캠퍼스온(溫)’ 유치에 성공했다.

소셜캠퍼스온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복권기금으로 조성·운영하는 시설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을 담당한다는 의미의 ‘캠퍼스’에 ‘따뜻하다(溫)’, ‘성장하다(grow on)’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 사회적경제계로부터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유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왔다.

제주사회적경제 뉴딜 일자리 3000 로드맵(2019년 8월)과 2차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추진사업(2020년 11월)에 따라 센터 유치

계획을 확정했다.

제주도는 센터 유치를 위해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를 방문해 소셜캠퍼스온 제주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제안서를 전달했다.

2022년 소셜캠퍼스온 제주가 본격 운영되면 예비사회적기업을 준비하는 창업자, 공간과 성장기반이 필요한 예비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입주공간과 코워킹 공간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각종 시설과 창업 성장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공적인 기업성장은 물론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대로그기자



謹賀新年

제주도민 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도 제주도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에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世紀建設株式會社